

대봉 작과율 예년의 20%...수확기 영암 농가 울상

봄철 냉해-잦은 비에 탄저병까지 덮쳐 수확량 80% 줄어 전국 최대 재배지...올 수매 예년 20% 소득 감소 불가피

영암의 특산물 대봉감이 봄철 냉해와 잦은 비, 탄저병 등으로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농가들이 울상이다. 영암군과 금정농협 등에 따르면 대봉감 수확기에 접어들었으나 작과율이 예년에 비해 20% 수준에 그쳐 수확량이 지난해 보다 70~8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감잎이 필 무렵인 봄철 냉해로 수경이 불량하고, 여름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낙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영암지역은 지난 4월 초 기온이 2~7도기량 낮았으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과 쌀쌀한 날씨

탓에 서리가 내리는 등 농작물과 과수의 냉해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비가 많이 내린 9월에는 방제시기를 놓치면서 탄저병까지 덮쳐 작과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확량이 급감하고 품질마저 떨어지면서 농가의 소득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 금정의 대봉감 재배면적은 650ha로 단일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금정 대봉감은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봉감보다 당도가 높고 단맛이 풍부하며 비타민C 성분이 많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영암군과 대봉감 최대 주산지인 영암금정농협은 지난 8월 농협의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20kg에 최대 1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협약했다. 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올 수매물량은 지난해 1000t에 턱없이 부족한 200~300t에 그칠 것으로 금정농협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월 예고된 수매 예정가가 지난해 2만 4000원에 비해 4만원으로 올랐으나 수확량 급감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정농협 관계자는 "대봉감 수확이 시작됐으나 이상기온 등의 영향으로 감이 열리지 않아 수확을 포기해야 할 농가가 많다"면서 "봄철 냉해피해로 보험금은 받은 농가도 있지만 수확량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암=전북한 기자 jbh@kwangju.co.kr



우승희(왼쪽 두번째) 영암군수가 대봉감 농가를 찾아 냉해 피해와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완도 '신품종' 목이버섯, 전남 임산물 품평회 우수상

해풍 맞고 자라 미네랄 풍부

완도군은 '제10회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 임산물 품평회에 출품한 목이버섯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출품한 목이버섯은 완도군 군외면 소재 임산물 농원 '꿈꾸는 돌멩이' (대표 윤영숙)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국내 신 품종이다. 완도 목이버섯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목이버섯과 달리 완도의 깨끗한 물을 주고,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을 맞고 자라 두툼하고 탱글탱글해 식감이 좋고 풍미가 뛰어난 특장점이다. 목이버섯은 비타민D, 칼슘, 베타카로틴, 철분, 엽산, 섬유질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져 기능성과 활용도가 높다. 목이버섯은 생 버섯과 건 버섯의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인의 소득



완도 목이버섯으로 전남 임산물 품평회서 우수상을 받은 '꿈꾸는 돌멩이' 대표 윤영숙씨. <완도군 제공>

과 권의 증대를 위해 완도군 대표 임산물인 황칠나무 조림 사업과 두릅, 엄나무 순, 버섯 등 특용작물 지원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 고하도 20인승 경사형 승강기 개통

목포 고하도 해상데크 구간과 등산로를 연결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진)가 최근 개통했다. 목포시는 최근 고하도 경사형 승강기 개통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설은 고하도 해상 갑판길과 등산로를 연결하는 보행자 편의시설을 보충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해상 갑판길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했다. 목포시는 지난해 승강기 설치 공사를 시작한 뒤 이달 마무리했다. 총 23억5000만원을 들여 해안가 사면에 길이 54m 경사형 승강기를 설치했다. 승강기는 20인승으로 모든 벽면에서 바깥 경치를 즐길 수 있다. 탁 트인 목포 항만과 유달산 경관, 목포해상케이블카, 목포대교, 서해 일몰 등을 볼 수 있다. 목포시는 경사형 승강기 설치로 고하도 해상 갑판길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목포시는 내년 고하도 뒷도랑 마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1km 구간 신규 해상 갑판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완료하면 해안 갑판길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자원을 보강할 것으로 목포시는 내다보고 있다. 총 길이 1.8km 해상 갑판길은 고하도 등산로를 거쳐 고하도 전망대 관람을 함께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고하도 해안가의 절경과 목포만의 이색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목포=박영민 기자 kyl@

해남참농가, 태국에 팔고구마 10t 추가 수출

5월 3t 이어...11월 중 선적

해남참농가(대표 김장훈)가 지난 5월에 이어 태국에 팔고구마를 추가 수출한다. 이번 추가 수주는 1차 물량 3t보다 많은 10t 이상으로, 11월 중으로 출하할 계획이다. 수출은 경기수출(주), 세종해운(주)과 협력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주는 CA컨테이너를 이용한다. 1차 수출보다 더 나은 품질의 팔고구마를 제공하기 위해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 이산화탄소 처리도 진

행할 예정이다. 해남참농가는 수주의 배경으로 뛰어난 품질을 꼽았다. 흙을 갈아엎는 객토작업으로 미네랄이 풍부해진 땅에 종자부터 직접 무균으로 키운 묘종으로 재배하고, 이후 최적의 온도에서 큐어링 후숙 숙성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고구마의 식감과 당도가 높아지고 보관 기간도 늘어났다. 이 같은 철저한 품질관리 덕분에 도매와 소매에서 해남참농가의 팔고구마는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의미의 'GAP 인증'도 획득했다. /해남=박희경 기자 dia@kwangju.co.kr

해남참농가는 고구마 식품 가공·유통 사업을 통해 연간 6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연간 고구마 2500t 생산하고 군고구마 맛의 아이스한입고구마와 실온에서 장기간 유통 가능한 전천후 군고구마 등 가공 제품들을 출시했다. 최근에는 미국 회원제 창조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사와 고구마직 전천후 수출 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해남참농가 관계자는 "앞서 수출된 팔고구마가 현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맛과 크기 등 품질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 추가로 수출할 수 있었다"며 "다른 국가로도 수출할 수 있도록 R&D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희경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이 최근 '진도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4년 만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진도군 제공>

착한가격업소 22개업소

목포시, 공공요금·물품 지원

목포시가 고물가에도 착한가격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대상에 공공요금 및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착한가격업소에 효율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업소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종량제봉투, 미용수건, 수저집 등 70여만원 상당의 운영물품을 업소별로 지원했었다. 하반기 11월에는 공공요금, 재료구입비 등 100여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청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착한가격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지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착한가격을 이용하고 홍보하면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안정 유도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한 제도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해 소매 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가 해당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큰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는 어려운 서민경제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군 '찾아가는 청년 아카데미' 운영

명사 특강·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

완도군이 도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완도군은 완도 청년센터 '완생'을 거점으로 청년 역량 강화, 취·창업 교육, 원데이 클래스 등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사진> '완생'은 회의실, 공유사무실, 카페·휴게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월·토(법정 공휴일 제외)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완도 청년센터 이용이 어렵고,

도서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문화·취미 활동 기회가 적은 금융업과 노후을 등지에서 운영됐다. 다음달 15일에는 고교생 청년들을 찾아가는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명사 특강으로 '서상일 훈장의 지역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과 자긍심',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가족 소품 만들기', '가을맞이 플라워 테라피' 등이 운영됐다. 정인호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올려 5000원

진도군은 오는 11월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2km)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25%) 오른다고 30일 밝혔다. 택시요금이 오르는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진도군은 최근 균형 상황하에서 진도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택시운임과 요금을 심의·의결했다. 임금·물가 등 운송원가 인상과 전남도 택시운임, 요금기준,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인상이 결정됐다. 2km까지 택시 기본요금은 5000원이 적용된다.

진도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까지 운행하는 요금은 20%에서 35% 이내로 조정된다. ▲거리요금 115m당 160원 ▲시속 15km 이하 주행 때 적용 시간 요금 160원 ▲자정-새벽 4시 심야할증 20% ▲호출 1회당 1000원 등은 현재와 같게 운영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손실 최소화를 위해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인상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 개선과 운영을 향상 등 택시 이용 고객 편의를 위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 마을리에 100억원 들여 먹거리통합센터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선정

영광군이 군서면 마을리 일원에 내년부터 4년간 100억원을 들여 '영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센터 건립은 영광군의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영광군이 전남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II 단계)'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된다. 도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영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먹거리 유통과

직거래 판매가 가능한 종합 유통시설을 갖춘다. 급식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산물 판매처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영광군은 기대했다. 센터 건립 대상지는 군서면 마을리 일원으로 선정됐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통해 영광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전남·북 접경지 먹거리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적인 뒷받침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